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와 참고문헌의 분석 -

The Co-occurrence Phenomenon of Both Korean and Non-Korean Literatures Within the Korean References

- An Analysis on the Citation Motivations and References by Social Scientists -

김 갑 선(Kapsoo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결과와 논의 |
| 1. 1 연구배경 | 3. 1 배경변인 |
| 1. 2 연구목적 | 3. 2 참고문헌 분석 |
| 2. 데이터와 방법론 | 3. 3 연구채널 |
| 2. 1 학술지 모집단 | 3. 4 인용동기 분석 |
| 2. 2 저자선정 방침 | 3. 5 국외문헌의 인용동기 영향요인 |
| 2. 3 연구설계 | 4. 결론과 논의 |
| 2. 4 연구 질문지 | |

초 록

본 연구는 참고문헌을 해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회 과학분야의 참고문헌리스트에서 발생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논의과정에서 작동된 인용동기와 그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에서 24종의 43부가 선정되어 321명(73.8%)의 저자들에게 연구채널과 인용동기가 서베이되었고, 이들의 11,358개의 참고문헌이 분석되었으며,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의 차이와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참고문헌의 동시공존의 정도는 국외문헌이 국내문헌보다 1.9배 (65.3%)로 우세하게 출현하였으며, 언어와 출판지 분포에서 영어(61.5%)-미국(50.4%) 우세성이 발견되었다. 2) 연구아이디어 획득의 정보원이자 연구자의 정체성 지표로서 작용된 연구채널은 상당히 국외채널 지향적(55.8%) 이었다. 3) 인용동기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우세한 국외문헌의 인용동기는 개념적인 동기(20.7%)와 형식적 동기(16.0%)였다. 4) 국외문헌의 인용동기는 제 변인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특히 연구채널은 국외문헌의 다양한 인용동기를 예측하는 주요과임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가 논의되었다.

ABSTRACTS

The present study, on the basis of a premise that reference lists are one of the social products, reflecting various social environments of their own society, was made as part of an attempt to explore the co-occurrence phenomenon of both Korean and Non-Korean literatures occurred within the Korean references. 321 authors (articles) of 43 issues of 24 Korean journals on Social Sciences were surveyed on research channels and citation motivations and their 11358 referenc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extent of the co-occurrence was that Non-Korean literatures were more 1.9 times (65.3%) cited than Korean ones and English (61.5%)-American (50.4%) predominancy was heavily found. 2) Research channel, worked as an indicator of the identity of researcher as well as the source of research ideas was most Non-Korean channel orientedness (55.8%). 3) Citation motivations were significantly depended on whether Korean or Non-Korean literatures and Non-Korean literatures were chiefly cited to be conceptual motivations than other motivations. 4) Research channel among variables was worked as a main effect predicting major citation motivations on Non-Korean literatures. Finally, this study is very suggestive : 1) It might be a new approach and interpretation by adopting citation motivations to explore a process of knowledge production of researchers. 2) Partly, it proved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of knowledge produced by Korean researchers to Non-Korean knowledge through the analysis of citation motivations.

키워드: 사회과학자, 인용, 인용동기, 인용행태,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kapskim@dreamwiz.com)
논문접수일자 2002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1월 10일

1. 서론

1.1 연구배경

인용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물로서 연구성과물에 첨부되는 참고문헌 리스트는 연구자와 연구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정보환경적, 국제적 지식체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특정 사회의 사회적 산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갑선 1999, 68). 따라서, 한국 사회의 지식생산자인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참고문헌 리스트는 우리 사회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한국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처럼 참고문헌 리스트를 해당 사회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새롭게 재인식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한국 연구자들이 생산한 논문의 참고문헌리스트에는 적어도 예외적인 주제 분과들(예, 한국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분과로서, 사학, 국어학, 민속학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제 분과에서 참고문헌으로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국의 연구자들이 생산한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인용의 증거로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이 동시에 발생·공존하는 현상을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고문헌리스트에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한국사회의 지식생산의 매카니즘과 관련된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이 현

상의 최소한의 의미는 대부분의 한국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지식체제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국외에서 생산된 국외지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외문헌들은 다양한 기능으로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국외지식은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어떠한 질적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연구자들의 어떠한 요인이 이들 국외지식을 인용하도록 하며, 한국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어떠한 특성들이 이들 국외지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구적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발생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 현상을 인용동기와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이라는 의미는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과정인 일련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작동된 매카니즘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가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의 초기 착수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아이디어 획득의 정보원인 연구채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논의를 구성하는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다분히 논리적이고도 주관적이며 보편적인 행위인 일련의 인용의 과정에서 작동된 선행지식(문헌)과의 관련성을 맺어가는 인용동기를 검토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

라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사회과학분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 분야를 선정할 이유는 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색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은 그 시대와 사회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배태하고 생산해 내는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과학과 자연 및 과학기술은 학문적인 특성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차이점 중의 하나는 이들 분야에서 지식의 응용이라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자연 및 과학기술에서 생산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은 사회과학에서 생산된 지식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과학 기술 지식의 보편성은 어느 사회에서나 즉각적으로 응용내지는 적용가능하다는 특색을 갖는 반면, 사회과학의 지식은 특정 시대, 특정 사회와 특정 사람들에 근거하여 구축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특정성과 지역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 근거한 사회와 인간에 관한 이론은 다른 사회의 사회와 인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즉자적인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사회과학의 이러한 지역성은 이들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

은 자연 및 기술과학의 지식보다 국제적으로 덜 빈번하게 교류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자국 지향적인 인용이 우세한 경향을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와 견주어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 2 연구목적

한국의 참고문헌 리스트에 나타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현상을 인식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국제적인 지식체제¹⁾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영역에 입지한 연구자로서의 입장과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 연구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첫째, 한국의 사회과학의 참고문헌에 나타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 공존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 아이디어 획득의 정보원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의 지표인 연구채널은 어디에 근거하며, 연구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 연구자들의 인용동기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한국 연구자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국외지식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생

1) 국제지식체제란 “국제적으로 지식의 생산체계, 분배 및 저장체계, 학문적 탁월성 인정체계 등으로 구성된 지식의 생산, 분배 이용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모형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종각 1983, 69).” 국제적인 지식체제의 실제적인 한 단면의 예가 서지정보나 인용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들(예,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nce Citation Index 등) 인데, 이는 영미권 중심의 축적으로, 주변부 영역의 빈약한 국제적 가시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변부 영역의 지역적 생산성이나 고유의 연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또한 주변부 영역의 국제적인 가시성의 획득이나 영향력의 확대방안이 비단 언어적인 측면의 극복문제나 국제적인 참여율의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김갑선 1999, 81).

산된 지식은 국외지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데이터와 방법론

참고문헌 리스트에 나타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 중에서 24개 학술지를 선정하여 1998년 봄에서 1999년 5월 사이에 발행된 가장 최근호의 각 2개씩 선정하여 총 43부의 435개의 논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부록1 참조). 435명의 논문의 저자들을 대상으로 인용동기에 관한 서베이가 1999년 5월과 6월 사이에 수행되었고, 각 논문의 참고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2.1 학술지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으로는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학회 학술지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용동기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발표 논문의 최신성과 공식성, 저자의 대표성과 공정성, 용이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사회과학분야의 공식적 학술지로서 일반적이고 근대적인 특성을 가진 24개의 학술지를 연구자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들 학술지는 1998년 봄에서 1999년 5월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각 2개씩 가장 최근호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선정기간내에 학술지의 간행이 지연된 일부 분야는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총 43부가 선정되었다(부록 1 참조). 24개의 분야는 1) 정치학, 2) 경제학과 무역학, 3) 행정학, 정책학, 그리고 지역개발학, 4) 경영학, 회계학, 소비자학, 마케팅과 유통학, 5) 사회학과 인구학, 6)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7) 가족관계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8) 사회 및 개인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9) 언론학과 광고학의 9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2.2 저자선정 방침

본 연구의 모집단인 43개 학술지에서 수록된 총 478개 논문 중에서 435개의 논문과 그 저자가 모집단으로 선정되었다(부록 1). 저자선정의 방침은 일차적으로 첫 번째 저자 원칙에 근거하였다. 사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주소불명으로 소재지 파악과 연락이 불가능한 저자(14명), 본 서베이에 불참의사를 밝힌 저자(5명), 그리고 중복저자(20명), 기타 요인에 의한 저자(4명)에 포함되는 총 43명의 저자를 제외하여 435명의 저자가 최종 모집단으로 선정되었다. 학술지 모집단에서 다수의 다른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은 연구자 임의로 그 저자의 최근 논문을 선택함으로써 저자의 중복 선정을 배제하였다. 공저작의 경우에도 첫 번째 저자원칙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공저작의 첫 번째 저자가 다른 단독 논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저자의 단독논문이 선정되었고, 그 두번째 저자를 대표저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저작된 논문의 실제적인 책임저자로 두번째 저자가 지명된 경우 그 두번째 저자 또는 세번째 저자를 그 논문의 책임저자로 선정하고 서베이 대상에 포함하였다.

2.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구체적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문헌의 동시공존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선정된 저자들을 대상으로 인용동기 서베이를 시행하였다. 서베이의 내용은 저자의 인용동기, 저자의 연구자 변인과 연구아이디어 획득정보원인 연구채널에 관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선정된 각 논문들의 논문특성을 연구관심사 유형과 논문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연구채널, 인용동기의 차이, 인용동기 영향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χ^2 와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2. 4 연구 질문지

인용동기 분석을 위해 1999년 5월과 6월의 약 2개월 동안 책임저자로 선정된 435명의 저자들을 대상으로 우편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서베이를 위한 질문지 세트에는 연구에 유용했다고 판정된 참고문헌의 인용동기 및 연구자변인과 연구채널의 이용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부록 2)와 선정저자의 인용동기 검토를 돕기 위해 해당 저자의 논문의 타이틀 페이지와 참고문헌의 복사본이 함께 첨부되었으며, 회신용 봉투가 포함되었다. 인용동기 서베이 시행 결과 321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73.8%(321명/435명) 였다(부록 1).

3. 결과와 논의

3. 1 배경변인

본 연구에서는 지식생산자로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특색과 이들이 생산한 지식의 특색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 변인과 논문 변인을 조사하고 이들 변인들을 분석의 배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1. 1 연구자 변인

본 연구에 선정된 사회과학분야 24개 주제의 공식 학술지에서 지식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위, 성별, 학위, 국외교육경험, 국외교육경험국, 출판경력, 주제분야 범주를 연구자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응답한 저자 321명 중에서 66%(212)가 교수였으며, 나머지는 대학강사(48, 15.0%), 연구원(44, 13.7%), 실무자(10, 3.1%), 대학원생(5, 1.6%), 기타(2, 0.6%) 순이었다. 성별면에서는 남성이 70.1%(225)로 우세하였고, 여성은 26.8%(96) 였다. 이들 중 90.0%(289)가 박사학위 취득자였으며, 그 나머지는 박사과정(19, 5.9%)과 석사취득자(13, 4.0%) 였다. 응

답자의 절반 이상인 55.1%(177)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국외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44.9%(144)는 국외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외교육 경험국은 미국이 86.4%(15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영국(5, 2.8%), 독일(5, 2.8%), 일본(5, 2.8%), 프랑스(4.2, 3%), 등의 순이었다. 출판경력은 49.5%(159)가 5년이하였으며, 6~15년이 44.2%(142)였으며, 그 다음이 16~25년(16, 5.0%), 26~35년(3, 0.9%), 35년 이상(1, 0.3%) 순이었다. 24개 주제분야는 9개의 주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그리고 사회복지학(78, 24.2%), 행정학, 정책학, 그리고 지역개발학(51, 15.8%), 경영학, 회계학, 소비자학, 마케팅과 유통학(49, 15.2%), 언론학과 광고학(37, 11.5%), 교육학과 교육사회학(29, 9.0%), 경제학과 무역학(27, 8.4%), 사회학과 인구학(23, 7.1%), 정치학(16, 4.9%), 사회 및 개인 심리학과 사회심리학(11, 3.4%) 순이었다. 또한 성별화된 현상이 일부 주제와 학술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가족관계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과 사회복지학의 주제분야로 주로 여성 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3. 1. 2 논문 변인

논문 변인은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된 321편 논문을 연구관심유형 변인과 논문유형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관심유형은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생산자인 연구자들이 주로 어떠한 사회 현

상에 일차적인 연구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적 연구관심, 국외적 연구관심, 일반적 연구관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적 연구관심이란 한국의 사회, 문화, 제도 등 한국의 사회현상이나 한국인의 사고와 한국인의 행태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때 한국과 국외의 비교 연구일지라도 한국연구자의 관점이라고 판단되면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국외적 연구관심이란 동일맥락에서 국외의 사회 현상이나 국외인의 행태등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일반적 연구관심이란, 연구의 특정 지역이나 대상을 구체화함 없이 일반적 사회현상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언급된 양자의 연구관심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일반적 연구관심으로 포함시켰다.

논문유형은 논문의 특성을 연구자들의 논의 전개와 입증방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학 학술지의 논문 유형을 구분한 바 있었던 B. C. Peritz(1983a, 212)의 연구에서 차용하여 이론적 논문, 방법론적 논문, 실증적 논문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적 논문이란 개념과 일반적 이론체계를 논의하는 논문을 포함하며, 방법론적 논문이란 연구설계, 자료수집, 분석의 방법을 다루는 논문으로, 방법론적 관점의 설명이나 입증을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한 논문도 이 범주에서 포함시켰다. 실증적인 논문에는 자료나 특성이 무엇이든간에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조사연구를 포함시켰다.

〈표 1〉은 본 연구의 한국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특성인 논문요인을

〈표 1〉 논문요인

연구관심유형	한국적	국외적	일반적	계
	267(83.2)	29(9.0)	25(7.8)	321(100.0)
논문특성유형	이론적	방법론적	실증적	계
	73(22.8)	40(12.5)	207(64.7)	320(100.0)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관심은 한국의 사회현상 또는 한국인의 행태 연구가 83.2%(267)로 가장 우세하였으며, 그 다음은 국외적 사회현상 연구가 9.0%(29), 일반적 연구가 7.8%(25) 순이었다. 논문유형은 실증적 논문이 64.7%(207)로 주로 많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22.8%(73)의 이론적 논문, 12.5%(40)의 방법론적 논문 (40, 12.5%) 순이었다.

3. 2 참고문헌 분석

각 논문의 참고문헌 분석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참고문헌의 동시공존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분포 〈표 2〉 뿐 아니라, 언어 분포 〈표 3〉, 출판지 분포 〈표 4〉, 문헌유형 분포 〈표 5〉, 문헌의 최신성 분포 〈표 6〉, 자기인용의 분포 〈표 7〉를 조사하였다.

〈표 2〉, 〈표 3〉와 〈표 4〉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회과학분야 지식의 상대적 특정성이라는 일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국외문헌의 인용율은 65.3%(741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2), 특히 영어 (61.5%, 6986) - 미국 (50.4%, 5727) 우세성이 집중적으로 존재한다(표 3, 4)는 점이었다.

이러한 참고문헌의 분석에서 국내문헌과 국

외문헌의 식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국적에 근거하였으며, 동시에 소속기관의 국적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국내문헌(혹은 한국문헌, 한국지식)이란 출판된 언어나 출판지의 상관없이 한국 기관에 소속된 “한국인”저자에 의해 출판된 문헌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한국인이 국외대학에서 간행한 미간행 학위논문이나 국외기관의 소속으로 발표된 문헌은 국외문헌 혹은 국외지식 또는 국외저자로서 간주하였다. 한국 저자와 국외 저자와의 공저작의 경우, 한국저자가 3번째 저자로 까지 나타난 문헌은 국내 문헌으로 간주하였고, 자가 인용(self-citation)의 경우 저자가 3번째 저자로 까지 나타난 문헌도 자기인용으로 간주하였다. 번역물은 원어와 원출판지에 따라 분석하였다. 언어의 범주는 원문이 표기된 언어에 의해 구분하였다. 단행본의 출판지는 첫번째 출판지 원칙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학술지와 정기간물의 경우 The Ulrich's Plus 1983-1998에 근거하여 간행지를 식별하였다. 당시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헌형태였던 웹문헌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간행지를 식별하였다.

참고문헌의 분석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대로, 본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상당히 국외문헌 지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의 대상이 된 321개의 논문의 총 11,358개의 참고문헌에서 국내문헌은 34.7%

(3,948)인데 반하여, 국외문헌은 65.3% (7,415)를 점하고 있었다. 한 논문당 참고문헌의 평균 수는 35.4개 였으며, 그 평균의 12.3개 (34.7%)가 한국문헌이며, 반면에 그 평균의 23.1개 (65.3%)는 국외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정도는 국외문헌이 국내문헌보다 1.9배 크며, 이는 국외문헌이 국내문헌 보다 1.9배 정도 더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별 분포와 출판지 분포에서 강력한 영어-미국 우세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의 언어별 분포는 영어가 61.5%(6,986)로 제일 우세한 언어이며, 그 다음은 34.1% (3,878)의 한국어 순이었다. <표 4>의 출판지 분포는 미국이 50.4%(5,727)로 우세하며, 그 다음이 34.3%(3,894)의 한국 순이었다. <표 5>의 문헌유형 분포에서는, 도서, 미간행 학위논문이 포함된 단행본이 45.0%(5,111)로 우세하며, 그 다음으로는 43.2%(4,902)의 학술지였으며, 신문, 잡지, 연간자료, 워킹 퍼이퍼, 심포지움 자료, 그리고 회의록이 포함된 정기간행물(10.7%, 1,211), 웹문헌(0.8%, 87), 미간행된 원고, 인터뷰 자료, 그리고 브리핑 자료가 포함된 기타 자료 순이었다. <표 6>에서, 참고문헌의 최신성은 출판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0~4년) 자료의 인용정도를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참고문헌의 38.7% (4,392)가 최신문헌이었으며, 최신문헌의 평균은 논문당 평균 35.4개의 참고문헌에서 13.7개 였다. <표 7>에서는 자가인용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자가인용은 저자가 현재의 논의를 자신의 이전 연구에 토대하여 구축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연구지속성과 성숙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사회과학자들의 자가 인용율은 2.7%(301)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 이와같은 참고문헌의 계량적 분석에 많은 노력이 가해졌지만, 참고문헌의 분석만으로는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참고문헌에 나타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표면적 분석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연구자들의 일련의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작동된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을 연구채널과 인용동기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시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채널과 인용동기의 분석은 한국의 참고문헌내에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는 국외문헌의 존재 근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표 2>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분포

참고문헌	국내문헌	국외문헌	계
	3,943(34.7)	7,415(65.3)	11,358(100.0)

<표 3> 언어 분포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기타	계
	6,986(61.5)	3,878(34.1)	258(2.3)	92(0.8)	57(0.5)	41(0.4)	46(0.4)	11,358(100.0)

〈표 4〉 출판지 분포

출판지	미국	한국	영국	일본	네델란드	독일	기타	계
	5,727(50.4)	3,894(34.3)	801(7.1)	260(2.3)	136(1.2)	116(1.0)	424(3.7)	11,358(100.0)

〈표 5〉 참고문헌 유형 분포

문헌유형	정기간행물	학술지	단행본	웹	기타	계
	1,211(10.7)	4,902(43.2)	5,111(45.0)	87(0.8)	47(0.4)	11,358(100.0)

〈표 6〉 최신문헌 분포

최신성	최신문헌	비-최신문헌	계
	4,392(38.7)	6,952(61.2)	11,358(100.0)

〈표 7〉 자기인용 분포

자기인용	자기인용	비-자기인용	계
	301(2.7)	11,025(97.1)	11,358(100.0)

3. 3 연구채널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한국 연구자의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연구자들의 연구채널을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연구자 변인과 논문변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채널이란 구체적으로 연구수행의 초기 착수단계에서 연구아이디어를 획득한 정보원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는 한 지역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의 지표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말해, 연구채널의 검토는 단순히 연구아이디어 획득 정보원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한 지역의 연구자로서 준거집단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연구 자극과 영향을 누구와 교류하고 있고, 어떤 연구현상에 연구관

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포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지역의 지식생산자로서 연구자의 정체성의 지표까지도 의미하고 있다고 상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채널은 참고문헌의 동시공존 현상에서 국외지식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지식생산과 밀접한 연결고리로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김갑선 1999, 80).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논문을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아이디어를 어떤 채널을 통해 획득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공식적 연구채널이란 관련 분야의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아이디어를 획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식 연구채널이란 다른 연구자와의 개인적 교류, 연구모임, 학술모임등을 통해 연구아이디어를 획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채널 검토 결과 사회과학자들은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국외채널 지향적이며, 이러한 국외채널 지향성은 참고문헌 리스트내에서 국외문헌의 높은 공존율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외채널은 학위, 국외교육경험, 연구관심유형과도 유의적인 관련이 있었다.

〈표 8〉에서 본 연구의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채널의 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외채널이 55.8%(179)으로 국내채널의 36.5%(117) 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사회과학자들이 국외채널 지향적임을 보여준다. 〈표 8〉의 연구채널 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국외 공식채널이 48.3%(155)로 우세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23.4%(75)의 국내 비공식채널, 13.1%(42)의 국내 공식채널, 그리고 7.5%(24)의 국외 비공식채널 순이었다. 즉, 분석의 대상이 된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연구아이디어 획득 정보원으로 국외문헌을 우세하게 선호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연구자들간의 학술모임등을 통해 연구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지식인 국내문헌은 덜 선호한다. 또한 국외연구자들과의 개인적 교류는 극히 저조한데,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인용동기분석에서 국외문헌의 사회적 인용동기가 매우 낮은 경향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외 기타의 의견으로는 “나의 선행연구에 기반했다”, “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에 근거했다”, “단지 나의 연구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국내 문제의 인식” 등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으며, 이들 답변은 기타 응답 (25, 7.8%)

으로 분류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지식 생산과정에서 국외사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절반 정도는 국외에서 생산된 문헌 검토를 통해 연구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국외채널 지향성은 연구자들이 준거집단을 한국의 지식공동체가 아니라, 국외 지식공동체에 두고 있으며, 주로 국외지식이나 국외연구자에 의해 자극받고 영향받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장에서 검토된 참고문헌 분석에서의 높은 국외의존성과 영어-미국우세성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채널과 연구자 변인, 논문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χ^2 검증 결과 연구채널은 학위 ($\chi^2=8.008$, $p=0.01 <.05$) 〈표 9〉, 국외교육경험 ($\chi^2=13.223$, $p=0.001 <.05$) 〈표 10〉, 연구관심유형 ($\chi^2=5.948$, $p=0.05 <.05$) 〈표 11〉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반면, 연구채널은 성별, 주제분야, 논문유형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국외의 공식채널인 국외문헌으로 부터 연구아이디어를 획득(48.3%)하여, 한국의 사회현상(83.2%)을 실증적으로 연구(64.7%)하고 있으며, 학위가 높을수록, 국외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국외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국내 여성학 분야 연구자들의 국외문헌의존도를 자가보고식으로 조사한 결과와도 비교 할 수 있다. 여성학 연구자들은 연구 외국어로서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연구경력이 많으며, 박사

〈표 8〉 연구채널의 이용

연구채널	국내채널		국외채널		기타	계
	국내공식	국내비공식	국외공식	국외비공식		
	42(13.1)	75(23.4)	155(48.3)	24(7.5)	25(7.8)	321(100.0)
	117(36.5)		179(55.8)		25(7.8)	321(100.0)

〈표 9〉 연구채널과 학위

연구채널 \ 학위	석사	박사재학	박사	계
국내채널	8(2.70)	11(3.72)	98(33.11)	117(39.53)
국외채널	4(1.35)	7(2.36)	168(56.76)	179(60.47)
계	12(4.05)	18(6.08)	266(89.86)	296(100.00)

결측자료 : 25(기타 해당으로 제외) $df=2$ $\chi^2=8.008$ $p=0.01 <.05^*$

〈표 10〉 연구채널과 국외교육경험

연구채널 \ 국외교육경험	있음	없음	계
국내채널	48(16.22)	69(23.31)	117(39.53)
국외채널	112(37.84)	67(22.64)	179(60.47)
계	160(54.05)	136(45.95)	296(100.00)

결측자료 : 25 (기타 해당으로 제외) $df=1$ $\chi^2=13.223$ $p=0.001 <.05^*$

〈표 11〉 연구채널과 연구관심 유형

연구채널 \ 연구관심유형	국내 관심	국외관심	일반적 관심	계
국내채널	104(35.14)	5(1.69)	9(2.70)	117(39.53)
국외채널	141(47.64)	21(7.09)	17(5.74)	179(60.47)
계	245(82.77)	26(8.78)	25(8.45)	296(100.00)

결측자료 : 25 (기타 해당으로 제외) $df=2$ $\chi^2=5.948$ $p=0.05 <.05^*$

학위 취득 연구자 일수록 국외문헌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갑선 1996, 145)와도 일치하는 추세이다.

3. 4 인용동기 분석

본 연구에서 인용동기는 참고문헌리스트에

발생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 현상을 한국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매카니즘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로서 조사하였다. 특히 인용동기분석은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참조된 국외문헌의 인용동기를 밝힘으로써 국외문헌의 질적 기능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외문헌의 공존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인용동기와 국제적 단위에서의 인용동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3. 4. 1 인용동기와 국제적 단위에서의 인용 동기

인용동기란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인용자의 연구논거 확립에 요구되는 정보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김갑선 1999, 77), 이러한 인용동기 작용의 행위 결과물이 참고문헌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5개의 인용동기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결과(김갑선 1999, 74-76)에 근거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용동기를 식별한 인용기능연구(Lipetz 1965 ; Chubin & Moitra 1975 ; Murugesan & Moravcsik 1975, 1978 ; Frost 1979 ; Peritz 1983 ; Oppenheim & Renn 1978 ; Amsterdamska & Leydesdorff 1989 ; Allen 1997)와 논문저자들을 피험자로 하여 직접적으로 인용동기를 조사한 인용동기연구(Weinstock 1971; Brooks 1985, 1986 ; Vinkler 1987; Cozzens 1989 ; Shadish et al. 1995)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으로 실질적 동기, 설득적 동기, 형식적 동기, 사회관계적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동기는 인용한 논문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작용되었던 요인으로, 개

념적 인용과 방법론적 인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념적 인용이란 연구질의 유도, 개념의 이해, 주요 아이디어원으로 작용되었던 인용동기 범주를 포함한다. 방법론적 인용이란 연구설계, 분석방법, 데이터 수집에 요구되었던 인용범주를 포함한다.

(2) 설득적 동기는 인용자가 선행연구의 수용에 있어 수동자가 아니라 능동자로서, 선행연구의 기존 지식(지식주장)을 승인(반복, 수용, 입증, 인증, 확증, 긍정적, 지지적 인용) 혹은 응용(지식주장 변형, 구별, 비교, 수정, 향상, 확대) 하거나, 부정(반대, 비난, 논박, 대체, 의문제기, 불승인, 기각, 부정적 승인, 부정적 인용,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인용자의 논리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인용이다. 또한 설득적 동기에서 승인적 요인은 명성있는 연구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상적 시스템”(Cozzens 1989), 인용을 통한 선행연구의 지지, “첫 연구자에게 경의표현”(Weinstock 1971), 연구성취에 대한 승인의 효과가 있음으로 보상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인용의 측면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본 연구에서 형식적 동기란 실제적으로 인용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연대기적 맥락에의 기여, 관련 연구의 서지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인용 범주로, 형식적 동기와 서지적 동기로 대별할 수 있다.

(4) 사회적 관계 동기는 연구논문을 구축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설득적인 동기보다는 인용자의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인용으로, “최신성, 사회적 합의”(Brooks 1985), “관계적 인용동기”(Vinkler 1987), “사회적 이유에 의한 인용”(Shadish et al. 1995) 등과 동일 의미이며, 친분관계에 의한 인용, 최신성의 유지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지식과시 인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실질적 동기에 해당되는 개념적

인용과 방법론적 인용을 각기 세분하는 것이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현상을 밝히려는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용동기는 개념적, 방법론적, 설득적, 형식적, 사회적 관계 동기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적용된 각 인용동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념적 인용동기는 용어나 개념, 정의의 이해를 위한 인용이라고 정의한다. 방법론적 인용은 연구설계나 분석방법을 인용하기 위한 것이며, 설득적 동기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비판, 수정, 지지, 논쟁하기 위한 인용으로 정의한다. 형식적 동기는 배경문헌의 제시, 혹은 관련선행연구를 열거하기 위해 인용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후속 참고문헌의 제공, 원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한 인용이다. 사회적 관계동기는 저자와의 사회적 친분관계로 인해 인용하거나 연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용동기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인용동기는 개념적 동기와 방법론적 동기, 설득적 동기이다. 이들 인용동기들은 연구자의 지식생산의 과정 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식 교류의 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국제적인 단위의 인용동기를 탐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적 동거나 방법론적 동기는 다른 인용동기보다 연구자의 연구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실질적으로 작용된 동기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설득적 동기 역시 연구과정에서 저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매우 생산적인 동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용동기를 국제적 지식체제와의 관

련성의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그 사회 고유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담지한 지식의 생산토대를 갖춘 사회인가, 또는 외부적 지식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인가의 여부는 인용동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그 사회 나름의 지식의 생산토대를 갖추지 못한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들은 끊임없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중심국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내용(개념, 이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관심을 기울려야 하며, 이들 주변부 영역의 대부분(혹은 일부)의 연구자들은 인용활동을 통하여 중심부 영역의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중심부 영역과의 최소한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자라고 볼 수 있다(김갑선 1999, 81). 이를 인용동기와 결부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제시할 수 있다. 외부적 지식체제로의 의존은 결국 개념이나 방법론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적 틀거리의 구축에 필요한 개념이나 방법론을 전적으로 중심부의 국외문헌에 의존하는 인용동기에서 비롯되었거나, 또한 학문적으로 주변국의 연구자들은 중심국에서 생산된 문헌(지식)의 권위와 명성에 의지하여 자신의 논거를 밝히고, 주장하는 보상적, 승인적 인용동기가 강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식생산토대를 갖춘 사회문화적 환경의 인용자들은 기존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변호하는 설득적 인용동기가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김갑선 1999, 80).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가 그들이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중심부

영역의 연구경향의 한 지류임의 과시나 혹은 중심부 영역과의 국제적인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 동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인용자를 둘러싼 국제적인 지식 체제 환경에서 인용자가 중심부에 입지한 연구자인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입지한 연구자인가에 따라 혹은 인용자가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이나, 연구적 타당성만을 인정받는 지식의 재생산자이나, 소비자이나에 따라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김갑선 1999, 82).

3. 4. 2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동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저자들에게 분석대상인 된 논문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유용하였던 참고문헌들의 인용동기만을 밝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 전개에 실제적으로 유용한 참고문헌의 의미는 이 논의를 제기한 연구자로서 동일한 주제의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꼭 읽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참고문헌들로 정의하였으며, 제시된 인용동기 범주내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핵심적인 동기가 되는 문헌을 하나씩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참고문헌에 대한 인용동기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논문 당 참고문헌의 수가 평균 35.4개로, 유용했던 참고문헌의 조사만으로도 타당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 결과 11,358개의 참고문헌 중 44.5%에 해당되는 5,050개의 문헌이 저자에 의해 유용한 참고문헌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인용동기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표 12>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관한 중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반적으로 유용했던 참고문헌(5,050) 중에서 국내문헌은 33.31%(1,682)인데 비해 국외문헌은 66.69%(3,368)로 유용한 국외문헌의 점유율이 국내문헌 보다 2배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용동기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chi^2=51.177, p=0.001<.05^*$)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시말해, 한국의 사회과학연구자들의 인용동기는 문헌의 국적여부(국내문헌, 국외문헌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국외문헌을 주로 개념적 동기에 의해 우세하게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연구적 틀거리에 필요한 개념을 국외지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외문헌들은 한국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개념적 기능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사회과학자들의 지식 생산 과정에서 문헌을 인용하는 전반적 동기는 29.74%(1,502)의 개념적 동기가 우세하며, 그 다음은 24.59%(1,242)의 설득적 동기였으며, 22.81%(1,152)의 형식적 동기, 19.88%(1,004)의 방법론적 동기, 2.97%(150)의 사회적 관계 동기 순이었다. 이러한 인용동기는 국내문헌인가 또는 국외문헌인가의 문헌의 국적 여부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chi^2=51.177, p=0.001<.05^*$)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외문헌은 국내문헌보다 인용율이 높은 가운데, 개념적 동

기(1,049, 20.77%)가 여타의 동기보다 우세하고, 그 나머지는 형식적 동기(810, 16.04%), 설득적 동기(766, 15.17%), 방법론적 동기(671, 13.29%), 사회관계적 동기(72, 1.43%) 순이었으며, 최하위의 사회관계적 동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국내문헌의 인용동기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외문헌의 사회적 관계 인용동기가 낮은 경향은 비공식적 국외채널의 이용이 낮은 것과도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국내문헌은 전반적으로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율을 보다 낮은 가운데, 설득적 동기(476, 9.43%)가 우세하며, 그 다음은 개념적 동기(453, 8.97%), 형식적 동기(342, 6.77%), 방법론적 동기(333, 6.59%), 사회관계적 동기(78, 1.54%)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는 국외문헌의 개념적 인용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자신의 연구적 틀거리 구축에 필요한 개념을 국외문헌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문헌을 배경문헌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선행연구로 열거하거나, 원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한 형식적 인용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외문헌의 인용동기 특색은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과학은 근대사회과학의 후발자로서 서구에서 발달된 개념이나

방법론의 도입과정이 있어왔기 때문이며, 동시에 현재까지도 서구에서 발달된 이들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영미권의 보편성을 추구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외문헌의 서지적, 열거적, 연대기적 맥락의 형식적 동기가 우세한 것은 서구 보편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주변부 연구자로서의 연구전략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의 비판, 수정, 지지, 논쟁의 설득적 인용동기가 국내문헌의 타 동기보다 높은 이유는 한국의 사회현상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맥락에서 비판, 수정, 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같은 인용동기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지식생산의 논의 과정에서 국외지식을 어떻게 구조화내지는 재구조화하는지, 국외지식은 한국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하는 실증적인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일반적 인용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국제적인 지식체제와 연관하여 재해석하고자 한다.

Brooks(1985)는 미국 특정대학의 현직교수 26명의 인용동기를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설득”이 우세한 인용동기였다. 주제분야별

〈표 12〉 국내외문헌과 인용동기

인용동기 문헌	개념적 동기	방법론적 동기	설득적 동기	형식적 동기	사회적 동기	계
국내문헌	453(8.97)	333(6.59)	476(9.43)	342(6.77)	78(1.54)	1,682(33.31)
국외문헌	1,049(20.77)	671(13.29)	766(15.17)	810(16.04)	72(1.43)	3,368(66.69)
계	1,502(29.74)	1,004(19.88)	1,242(24.59)	1,152(22.81)	150(2.97)	5,050(100.00)

df=4 $\chi^2=51.177$ $p=0.001<.05^*$

인용동기를 살펴보면, 사회 및 자연과학자는 “최신성”, “관련문헌 제시”, “설득” 순이었으며, 인문과학자는 “설득”이 매우 우세하였다. 유현진(1988)은 Brooks(1985)의 동일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경영학과 기계공학의 현직교수 62명의 인용동기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개념이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한 인용”(29.3%)이 매우 우세하며 그 다음은 “설득”(23.4)이었다. 각 주제별 인용동기를 살펴보면, 경영학 연구자들은 “개념이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31.9%)가 매우 우세하였으며, 자연과학의 경우 “자신의 연구방법이나 결과를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28.8%)가 우세하였고, 그 다음은 “개념이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25.6%)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용동기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과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관한 초기 질의(김갑선 1996, 145-147)에서는 여성학이 한국 사회로 도입된 대표적인 서구학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박사재학 이상의 여성학연구자 105명을 대상으로 Peritz(1983b)와 Brooks(1985)의 모형을 응용하여, 국외문헌의 인용동기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는 “연구의 최신성 유지”(38.3%), “용어, 정의 등의 개념적 정보”(30.0%), “연구방법론을 인용하기 위해서”(26.6%)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Brooks의 연구(1985)와 동일모형을 적용한 유현진의 연구(1988)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은 인용자가 국제적인 지식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영역에 입지하는가 혹은 중심부에 입지하는가에 따른 인용동기의 차이이며, 이와 동시에 중심부에 생산

된 국외문헌인가 혹은 동일 주변부에서 생산된 국내문헌인가의 문헌의 국적여부에 따른 인용동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중심부 영역에 속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Brooks 연구(1985)는 영미권이라는 자체영역내에서 주로 설득적인 동기에서 인용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주변부 영역에 속해 끊임없이 중심부에서 생산되는 지식에 관심을 기울려야 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개념이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한 인용동기가 우세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현진의 연구(1988)가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식별없이 전체참고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인용동기를 조사한 연구로서, 참고문헌내의 국외문헌의 점유율이 높았을 가능성과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의 차이를 간과한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유현진의 연구(1988)와 국외문헌 인용동기를 조사한 초기 연구(김갑선, 1996), 그리고 본 연구결과 모두 국외문헌의 개념적 동기의 우세성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Brooks 연구(1985)와 이에 비교되는 국내연구자 대상의 일반적 인용동기연구(유현진 1988), 국외문헌 인용동기 초기연구(김갑선 1996)와 본 연구의 인용동기의 차이는 주제분야별 차이이기 보다는 영미권에 위치한 중심부 영역의 연구자와 상대적으로 주변부 영역에 있는 연구자와의 인용동기의 차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적인 지식체제에서 중심부 영역의 연구자와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들의 인용동기의 차이를 동일한 상황과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제적인 지식체제에서 중심부에 입지하는가 혹은 주변부에 입지하는가에 따라 그 인용동기가 다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5 국외문헌의 인용동기 영향요인

본 장에서는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으로서 참고문헌내에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는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유용했던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각 인용동기의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였다. 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참고문헌의 수도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유용하다고 판정된 참고문헌의 수와 각 인용동기의 문헌의 수도 각기 다름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국외문헌의 각 인용동기의 주효과(main effect) 분석을 위해 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SAS GLM(General Linear Models) 절차를 통해 국외문헌의 각

인용동기의 상대비율을 지위, 성별, 학위, 해외 교육경험, 출판경험, 주제분야 범주, 연구채널, 연구관심유형, 논문특성유형의 9개의 변인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표 13〉은 전체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인용도와 유용하다고 판정된 국외문헌의 상대적 인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식별한 것이다($p < .05^*$).

전체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인용도는 각 논문의 전체 참고문헌에서 국외문헌의 수를 구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사회 및 행동과학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9개의 변인 중 주제분야, 연구채널, 연구관심유형, 논문특성유형에 따라 전체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인용동기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p < .05^*$), 이들 변인들이 전체 국외문헌의 인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용하다고 판정된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인용도는 각 논문의 전체 참고문헌에서 유용하다고 판정된 국외문헌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는 전체 참고문헌중에서 연구자의 지식생산의 논의과정에서 실제로 기여했던 유용한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미치는 전

〈표13〉 주요변인과 국외문헌의 상대적 인용동기의 변량분석

변인	df	국외문헌의 상대적인용도			
		전체국외문헌		유용한 국외문헌	
		F	P	F	P
주제분야	8	3.30	0.0013*	2.34	0.0194*
연구채널	1	63.99	0.0001*	80.35	0.0001*
연구관심	2	21.02	0.0001*	12.81	0.0001*
논문유형	2	5.74	0.0036*		

P<.05*

반적인 영향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분야, 연구채널, 연구관심유형에 따라 유용하다고 판정된 국외문헌의 인용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5^*$).

〈표 14〉는 보다 구체적인 각 인용동기에서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을 식별한 것이다($p < .05^*$).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개념적 인용도는 한 논문에서 유용했던 전체참고문헌에서 개념적으로 인용된 국외문헌의 수를 구한 것으로, 이는 연구채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p < .05^*$).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방법론적 인용도는 한 논문에서 유용했던 전체참고문헌에서 방법론적으로 인용된 국외문헌의 수를 구한 것으로, 연구채널과 논문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p < .05^*$).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진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설득적 인용도는 국외교육경험, 연구채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p < .05^*$). 또한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형식적 인용도는 연구출판경력과 주제분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p < .05^*$). 국외문헌의 상대적인 사회관계적 인용도는 연구출판경력과 연구관심사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p < .05^*$).

〈표 14〉에서 제시된 바대로, 이러한 결과는 연구채널(국내채널, 국외채널), 논문유형(이론, 방법, 실증), 9개의 주제분야, 그리고 연구관심(한국, 국외, 일반) 등과 같은 일부 변인들이 국외문헌의 각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는 신뢰할 만한 변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어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의 참고문헌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한 지역 연구자의 정체성의 지표이자 연구 아이디어 획득원인 연구채널이라는 점이다.

〈표 14〉 주요변인과 국외문헌의 상대적 인용동기에 관한 변량분석

변인	df	국외문헌의 상대적 인용동기									
		개념적인용		방법론적인용		설득적인용		형식적인용		사회적인용	
		F	P	F	P	F	P	F	P	F	P
지위	5										
성별	1										
학위	2										
국외교육경험	1					6.45	0.0116*				
출판경력	3							4.24	0.0060*	3.87	0.0098*
주제분야	8							2.00	0.0465*		
연구채널	1	7.01	0.0086*	10.25	0.001*	3.82	0.0516*				
연구관심	2									5.6	0.0039*
논문유형	2			5.83	0.003*						

P < .05*

4. 결론과 논의

국제적인 지식체제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영역의 지식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논의들은 상대적인 주변부 영역의 과학기술분야는 국외의존적인 반면에, 사회과학분야는 자국지향적인 인용경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마찬가지로 한국 연구자들이 국외 지식공동체에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것은 주로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인용연구 혹은 참고문헌분석(이혜영 1994, 최상기 1996,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인용문헌 분석의 한계는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인용문헌의 계량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국외의존 현상에 대한 표면적 측정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외의존현상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측면인 한국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논의 과정에서 왜 국외문헌이 더 많이 인용되고 참조되는지, 논의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국외문헌(국외지식)을 어떻게 구조화 혹은 재구조화하며, 이때 이들 국외문헌들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외문헌을 인용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진 바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과학분야가 그 탐구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진 바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고문헌리스트란 해당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을 전제로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참고문헌리스트에서 발생하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작동된 인용동기와 그 참고문헌의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시도였다.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에서 24종의 43부가 선정되어 321명(73.8%)의 저자들에게 연구채널과 인용동기가 서베이되었고, 이들의 11,358개의 참고문헌이 분석되었으며,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의 차이와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밝혀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관심은 주로 한국의 사회현상 연구(83.2%)에 있으며, 주로 실증적 연구(64.7%)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참고문헌의 동시공존의 정도는 국외문헌이 국내문헌보다 1.9배(65.3%)로 우세하게 출현하였으며, 언어와 출판지 분포에서 영어(61.5%) - 미국(50.4%) 우세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지속성과 성숙성을 의미하는 자기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2.7%)이다. 셋째, 연구아이디어 획득의 정보원이자 연구자의 정체성 지표로서 작용된 연구채널은 상당히 국외채널 지향적(55.8%)이며, 특히 선호되는 국외공식채널(48.3%)은 선호되는 국내비공식채널(23.4%)보다 2.1배 더 우세하였다. 또한 연구채널은 8개의 변인 중 학위, 국외교육경험, 연구관심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넷째, 유용했던 참고문헌 중에서 국외문헌이 국내문헌보다 2배(66.6%) 더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었으며, 인용동기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다른 여타의 인용동기들 보다 국외문헌의 개념적인 동기(20.7%)가 매우 우세하며, 국외문헌의 형식적 동기(16.0%)도 우세하게 인용되

고 있어, 이들은 한국연구자들의 지식생산의 논의과정에서 개념적 기능과 열거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용동기적 특색은 서구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로서의 연구전략적 인용동기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각 인용동기에 따라 다양했으나, 연구자 및 논문 요인의 9개의 변인 중 국외교육경험, 출판경력, 주제분야, 연구채널, 연구관심유형, 논문유형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연구채널은 국외문헌의 다양한 인용동기를 예측하는 주효과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한국 사회과학분야의 전반적 국외의존성은 사회과학분야의 일반적인 경향인 자국-지향적 인용추세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흥미로운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한국적 참고문헌 현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는 연구아이디어 획득 원으로서 국외채널선호와 이와 결부되는 문헌의 국적여부에 따른 인용동기의 유의적인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생산의 논의과정에서 국외문헌의 개념적 인용의 우세함과 형식적 인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색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특히 한국이 근대적 의미의 사회과학분야의 후발자로서 근대적 학문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서구사회에서 배태된 학문적 용어나 그 개념, 방법론 등 지식의 틀을 도입하는 시기를 거친 바 있는 한국의 근대 학문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주로 서구에서 도입된 이론들과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서구적 보편성의 추구 경향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생산적인 (연구 다산성과 생산된 연구결과물의 질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연구자로서의 미덕은 국외에서 생산된 이론이나 개념, 방법론을 한국사회에 즉각적이고 즉자적으로 대입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서구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토대에서 생산되어진 서구 이론을 한국의 사회와 인간을 연구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이나 개념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서구이론의 문화적 상대성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들 이론이 우리의 사회와 인간을 연구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편협한 국수적 사고의 폐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적 환경에서 배태된 서구의 사회이론을 아무런 중간여과장치나 매개없이 한국의 사회와 인간에 기계적이고도 즉자적으로 대입시키는 맹목적인 보편지향성에 근거한 사고의 역효과에도 분명히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논의에서 밝혀진 '참고문헌에서의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동시공존현상'과 맞물려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국외이론의 창의적인 극복의 문제이다. 다시말해, 이는 한국 지식공동체의 당의적인 과제로서 서구 이론들에 독립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한국적 이론들을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이론들의 생산을 위해서는 국내의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국외이론의 분석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이 가지는 개별적인 상황들을 구체화시키고 이것들을 다시 분석들에 결합시킴으로써 한국적 사회현상 연구의 새로운 이론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적 사회현상의 개별성에 기반한 귀납적인 이론들을 입론화하여 보편적인 이론으로 생성시켜 나아가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인용동기의 자체 규명에만 주안점을 두어왔던 종래의 단순 연구경향에서 전환하여 국외문헌의 인용동기 탐구를 통해 국제적인 지식공동체간의 지식의 교류나 전이 과정의 한 단면에 적용함으로써 인용동기 연구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연구자들의 국외문헌의 인용동기와 그 차이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식체

제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국외문헌의 인용동기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는 인용동기 분석을 통해 한국연구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질적인 특성과 국외지식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이다. 다시말해, 주변부 영역에서 생산된 지식이 중심부 영역 지식의 “모방적이고, 파생적”이라는 종래의 비판에 대해, 과연 한국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이 서구이론의 “모방적이고 파생적”인 특성인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접근만으로서 그 문제의 직접적 해답까지 도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화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갑선. 1996. 여성학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기술의 이용. 『제13차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1996년 11월 16일. [서울 : 서울대학교].
- 김갑선. 1999.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1): 68-86.
- 유현진. 1988. 『국내학자들의 문헌인용행태에 대한 연구: 경영학 및 기계공학분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이종각. 1983. 외국이론의 도입과 교육이론의 토착화. 『교육학연구』, 21(9) : 67-82.
- 이해영. 1994. 한국 전기 전자공학 분야의 인용 분석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1): 57-79.
- 최상기. 1996. 한국과 일본의 기계공학 분야의 인용분석 비교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3(2): 121-141.
- Allen, Bryce. 1997. "Referring to schools of thought: An example of symbolic citations." *Social Studies of Science*

- 27: 937-949.
- Amsterdamska, Olga and L. Leydesdorff. 1989. "Citations: Indicators of significance?." *Scientometrics* 15(5-6): 449-471.
- Brooks, Terrence A. 1985. "Private acts and public objects: An Investigation of citer moti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4): 223-229.
- Brooks, Terrence A. 1986. "Evidence of complex citer moti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7(1): 34-36.
- Chubin, D. E. and S. D. Moitra. 1975. "Content analysis of references: Adjunct or alternative to citation counting?." *Social Studies of Science* 5: 423-441.
- Cozzens, Susan E. 1989. "What do citations count? : The rhetoric-first model." *Scientometrics* 15(5-6): 437-447.
- Frost, Carolyn O. 1979. "The Use of citations in literary research: A preliminary classification of citation functions." *Library Quarterly* 49(4): 399-414.
- Kaplan, N. 1965. "The Norms of citation behavior: Prolegomena to the footnote." *American Documentation* 16(3): 178-184.
- Lancaster, F. W., S. K. Lee, and C. Diluvio. 1990. "Does place of publication influence citation behavior?." *Scientometrics* 19(3-4): 239-244.
- Lipetz, Ben-Ami. 1965. "Improvement of the selectivity of citation indexes to science literature through the inclusion of citation relationship indicators." *American Documentation* 16(2): 81-90.
- Liu, Mengxiong. 1993. "A Study of citing motivation of Chinese scientist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9(1): 13-23.
- Moravcsik, Michael J. and Poovanalingam Murugesan . 1975. "Some results of the function and quality of cit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5: 86-92.
- Murugesan, Poovanalingam and Michael J. Moravcsik. 1978. "Variation of the nature of citation measures with journals and scientific specia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9(3): 141-147.
- Oppenheim, Charles and Susan P. Renn. 1978. "Highly cited old papers and the reasons why they continue to be cite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9(5): 227-231.
- Peritz, B.C. 1983a. "Are methodological papers more cited than theoretical

- or empirical ones?: The case of sociology." *Scientometrics* 5(4): 211-218.
- Peritz, B.C. 1983b. "A Classification of citation role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related fields." *Scientometrics* 5(5): 303-312.
- Shadish, William R. et. al. 1995. "Auther judgements about works they cite: Three studies from psychology journals." *Social Studies of Science* 25: 477-498.
- Vinkler, P. 1987. "A Quasi-quantitative citation model." *Scientometrics* 12 (1-2): 47-72.
- Weinstock, Melvin.1971. "Citation indexes." In: *Encyclopa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 New York: Marcel Dekker: 16-40.

부록 1 : 분석 대상이 된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및 회수율

주제범주	분석 학술지	총논문	선정논문	회수율	총회수율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1999. 32(3), 32(4)	31	22	16	16
경제학	경제학연구. 1998. 46(4), 1991. 47(1)	30	29	19	27
	무역학회지. 1998. 23(3)	11	11	8	
행정학	한국행정정보. 1998. 32(3), 32(4)	32	29	20	51
	한국정책학회보. 1998. 7(3), 1999. 8(1)	28	23	21	
	지역사회개발연구. 1998. 23(2)	13	13	10	
경영학	경영학연구. 1999. 28(1), 28(2)	24	23	17	49
	회계학 1998. 23(4), 1999. 24(1)	12	11	10	
	소비자학연구. 1998. 9(4), 1999. 10(1)	14	12	8	
	마케팅연구. 1998. 13(2), 1999. 14(1)	14	12	9	
	유통연구. 1998. 3(1)	7	7	5	
사회학	한국사회학. 1998. (32), 1999. (33)	15	15	12	23
	한국인구학. 1998. 21(1), 21(2)	14	12	11	
교육학	교육학연구. 1998. 36(4), 1999. 37(1)	33	29	22	29
	교육사회학연구. 1998. 8(2)	13	13	7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 1998. 3(1), 3(2), 1999. 4(1)	23	20	13	78
	아동학회지. 1998. 19(2), 1999. 20(1)	31	28	19	
	청소년학연구. 1998. 5(3), 1999. 6(1)	18	16	9	
	한국노년학. 1998. 18(2), 18(3)	17	15	12	
심리학	한국사회복지학. 1998. (36), 1999. (37)	31	30	25	11
	사회 및 성격. 1998. 12(2)	9	9	5	
언론학	사회문제. 1998. 4(1)	8	7	6	37
	광고학연구. 1998. 9(4), 1999. 10(1)	24	24	17	
	한국언론학보. 1999. 43(2), 43(3)	26	25	20	
	학술지 = 24종, 43부	478	435*	321	321 (73.7%)

(43 = 중복저자, 거절, 주소불명 제외)*

부록 2. 질문지

교수님/선생님께 :

신록의 향기 가득한 오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 김갑선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참고문헌행태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최근의 관련 분야 학술 지에 논문을 발표하신 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완성여부는 선생님의 참여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요약되어 사용되어질 뿐 개인이 공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교육과 연구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시더라도 5분간의 시간을 할애하시어 꼭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질문지와 선생님의 최근 논문의 참고문헌 복사본을 함께 보내오니, 응답하여 주신 이후에 동봉한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① 본 질문지와 ② 논문의 참고문헌 복사본을 함께 가능한 한 1999년 5월 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시오.

선생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5월 일

연구자 김 갑 선 올림

도서관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연락처:

참고문헌행태에 관한 연구 질문지

* 다음의 1, 2, 3 문항은 첨부하여 드린 선생님의 최근 논문과 그 참고문헌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입니다.

1. 이 논문의 연구수행시 핵심적인 연구아이디어는 어디서 획득하였습니까? ()

- ① 국내에서 간행된 관련 분야의 문헌(단행본, 학술지) 연구를 통해
- ② 국내의 동료연구자와의 개인적 교류, 연구모임, 학술회의 참석을 통해
- ③ 외국에서 간행된 관련 분야의 문헌연구, 혹은 국내의 그 번역본을 통해
- ④ 외국의 연구자와의 개인적 교류, 연구모임, 학술회의 참석을 통해
- ⑤ 기타 ()

2. 이 논문에서 선생님의 논의를 전개시킴에 있어 실제로 유용하였던 참고문헌들을 V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사본에서 해당 참고문헌의 왼쪽에 직접 표기하여 주십시오. 갯수 선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문항 2의 표기방법 :

<u> </u> V 김주연. 1998. 과학기술혁명. 서울: 푸른산 ---
<u> </u> V Cronin, B. 1997. "Metatheorizing citation," Scientometrics 43(1): 45-55 ---

'실제로 유용하였던 참고문헌들'의 의미는 선생님께서 이 논의를 제기한 연구자로서 "이러한 주제의 후속 연구가 수행된다면 꼭 읽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참고문헌들"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3. 2에서 V로 표시된 참고문헌들은 주로 어떤 참조동기로 이용되었는가를 답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참조동기 범주내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핵심적인 동기로 하나씩만 선택하여 V로 표시된 참고문헌의 왼쪽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문항 3의 표기방법 :

<u> </u> 1 V 김주연.1998. 과학기술혁명.서울: 푸른산 ---
<u> </u> 7 V Cronin, B. 1997. "Metatheorizing citation," Scientometrics 43(1): 45-55 ---

- ① 개념적 참조 : 용어나 개념, 정의의 이해
- ② 방법론적 참조: 연구설계, 분석방법
- ③ 선행연구의 논의를 비판, 수정, 지지, 논쟁하기 위하여 참조
- ④ 배경문헌의 제시, 혹은 관련 선행연구를 열거하기 위해 참조
- ⑤ 연구와 관련된 후속참고문헌의 제공, 원(原)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해 참조
- ⑥ 저자와의 사회적 친분관계로 인해 참조
- ⑦ 연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조

4. 선생님의 직위는 ? ()

- ① 교수 ② 강사 ③ 대학원생 ④ 연구원 ⑤ 해당분야 실무가

5.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6. 선생님의 최종학위는? ()
① 석사 ② 박사과정 중 ③ 박사
7. 국외교육경험(석사 혹은 박사과정)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국외교육경험이 있다면, 국외교육 경험국은 어디입니까? ()
① 미국 ② 영국 ③ 프랑스 ④ 독일 ⑤ 일본 ⑥ 중국 ⑦ 기타()
9. 학위취득 이후 공식적인 논문발표(학회/학술지발표) 활동 시작 시기에서 최근 완료 시기 까지로 산정한 선생님의 출판활동 경력은? ()
① 5년이하 ② 6-15년 ③ 16-25년 ④ 26-35년 ⑤ 35년 이상

감 사 합 니 다

본 질문지와 참고문헌의 복사본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